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표지 탐색하기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과 표지의 첫 느낌은 어떤가요?

⇨

2) 책 앞표지에 보이는 그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생김새, 자세 등을 보이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

3) 표지에 보이는 그림들 중에서 이전에 알고 있던 캐릭터가 있으면 이름을 써보세요. (예. 처녀귀신)

⇨

4) 책의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가) 한 날 저승길 동무가 된 갑수 아비와 을수 아비 이들 중 제삿밥 한번 못 얻어먹고 쫄쫄 굶는 귀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 욕심 많은 사고뭉치 아들을 둔 갑수 아비 “귀신이 뭘 먹는다고 흰쌀밥을 해 바치나?” (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반편이 아들을 둔 을수 아비 “을수, 이놈아! 죽은 아비를 어디다 내다 버린 게야?”

(나), (다)를 참고할 때, (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추리하여 써보세요.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네는 귀신이 되어서도 ㉠꽁지에 불붙은 다람쥐마냥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가?"

을수 아비는 ㉡겸연쩍은 얼굴로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 을수가 가을걷이를 잘 했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휑하니 구름재 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제 을수 혼자 살아야 하는데 쌀 한 (　　)도 ㉣허투루 버릴 수 없잖아요. 벼 한 (　　)라도 논에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자네는 ㉤살아서도 일이요, 죽어서도 일이로구먼."

"㉥땅 파 먹고사는 팔자가 어디 쉽게 바뀌겠습니까?"

을수 아비는 허허 웃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갔어요. 농사꾼 팔자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게 부모 팔자이니까요.

1)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 ㉠~㉤의 뜻을 상황에 맞게 풀어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 : 매우 바쁘게　　② ㉡ : 민망하고 부끄러워하며

③ ㉢ :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④ ㉣ :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⑤ ㉤ : 살아서도 일만 하더니, 죽어서도 일을 하는구먼.

⑥ ㉥ : 농사를 지어 먹고사는 팔자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세는 단위'를 앞의 말에 어울리게 쓰세요.

• 쌀 한 (　　)	• 벼 한 (　　)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흉내내는 말을 지어서 써보세요.

① 어느새 눈이 을수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이 쌓였어요. 정수리에서 열이 나고 김이 (　　) 올랐어요.

②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머리가 (　　) 돌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앓기만 했으니 기운이 다한 거지요.

③ 구슬픈 울음소리가 낮은 산허리에 울려 퍼졌어요. 을수 아비는 가슴을 불에 덴 것처럼 (　　) 뛰었어요.

④ 을수는 굿상 위에 놓인 떡과 과일을 (　　) 쳐다보았어요.

⑤ 네 죄를 씻기 위해 내 말에 따라야 한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비의 무덤 앞에서 재롱을 부려라. 옷을 훌훌 벗고 (　　) 춤을 추어 아비를 기쁘게 해 드려라.

2) 다음 [보기] 중에서 위 1)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쓰고, 1)에서 자신이 쓴 표현과 비교하며 문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보기]				
핑그르르	겅중겅중	덩실덩실	모락모락	멀뚱멀뚱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을수는 아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눕혔어요. 흙을 뿌리려고 하는데 아비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을수는 멍석을 살포시 들추고 푸르뎅뎅한 아비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얼굴도 만져 보고 머리카락도 쓸어 보았어요.
>
> 아비가 한숨 잘 잤다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날 것 같았어요. 시신을 깊이 묻어야 극락 간다는 말, 안 그러면 지옥 불가마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꾀수 아비의 말이 귓등을 울렸어요. 하지만 을수는 아비를 땅에 묻을 수 없었어요.

1) 윗글의 장면에 나타난 을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비의 죽음을 대하는 을수의 마음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

2) 책의 본문 30쪽 6번째 줄(을수는 구덩이를 도로 메우기 시작했어요.)부터 31쪽 14번째 줄(을수는 언제든 아비를 찾아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까지 읽고 을수가 죽은 아비의 새 집을 지은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

① 구덩이 메우기	⇨	② 돌판 만들기	⇨	③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갑수는 마룻바닥을 치며 서럽게 흐느껴 울었어요. ㉠속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측은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와 아주머니 들은 옷고름을 당겨 눈물을 닦기도 했어요. / "효잘세, 효자야."

연세 지긋한 훈장 할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감탄을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 마을에 효자를 내셨구나."

"제가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어른들을 보니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만……."

갑수는 숨이 넘어갈 듯 서럽게 울었어요.

(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 내가 뱀을 낳은 거지."

멀리서 지켜보던 갑수 아비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입맛을 다시며 잔칫상을 쳐다보았지요. / ㉡'죽으면 엽전 한 닢도 쓰지 못할 걸 내가 왜 애면글면 살았을꼬?'

며칠 동안 갑수 아비는 상식을 받아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주막집 강아지보다 못한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 )

1) (가)에서 마을 사람들은 갑수를 하늘이 내린 효자로 생각하고 측은해하고 있습니다. ㉠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속사정은 무엇인가요?

⇨

2) ㉡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갑수 아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① 평생 돈한푼 없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다.

② 온갖 힘을 다해 재산을 모으고 구두쇠처럼 살았다.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을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비에게 상식을 바쳤어요.

그날도 첫새벽에 일어나 구름재에 있는 아비에게 상식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아침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탓에 을수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마침 우물가를 지나던 을수는 물을 마시려고 우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물을 긷던 아낙네들이 수군수군했어요. 한 아낙네의 얼굴이 팥죽빛으로 변하더니 을수에게 두레박에 담긴 물을 확 끼얹었어요.

"천하에 불효자 같으니. 감히 마을의 우물물을 마시려고 해. 저리 가지 못해!"

갑작스레 물벼락을 맞고 을수는 얼이 빠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

"우물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저 아래 썩은 개울물이나 떠다 마시도록 해."

1) 윗글에서 죽은 을수 아비를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을수의 진실과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을수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을수의 진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을수	

2) ㉠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을 서술하세요.

⇨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관련지식 쑥쑥 키우기

다음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제 을수 아비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 보자."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꾀수 아비가 나서서 길 안내를 했어요. 작은 둔덕을 넘으니 바로 을수 아비가 누워 있는 소나무 숲이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을수 아비의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요."

꾀수 아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초가지붕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어요. 초가지붕을 찬찬히 살펴보던 원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참, 희한하구나. 이것이 정말 무덤이란 말이냐?"

원님의 물음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땅을 파고 시신을 묻지 않았으니 무덤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초가지붕으로 하늘을 가렸으니 무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나) "그건 우리 아부지 새 집이에요."

을수의 목소리였어요. 날이 밝자마자 을수는 상식을 올리려고 구름재로 올라왔어요.

을수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어요. 을수는 품에서 밥주발을 꺼내 아비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절을 꾸벅 올렸어요.

(다) 비로소 사람들은 을수가 아비의 시신을 내다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땅속 깊이 묻어 버리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 을수는 아비의 시신을 초가지붕으로 덮어 놓고 아비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을수가 아버지를 새 집에 모신 게로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구름재 사람들이 잘못을 빌었어요. 을수는 송아지처럼 눈만 껌벅거렸어요.

1) (가)~(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꾀수 아비는 을수가 을수 아비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다.

② 당시에는 보통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것을 무덤이라고 했다.

③ 을수는 원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밥주발을 가지고 왔다.

④ 을수가 죽은 아비를 모셔 놓은 것은 다른 무덤과는 다른 모양이었다.

⑤ 을수는 죽은 아비를 정성껏 잘 모시고 있었다.

2) (다)에서 을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윗글에서 을수가 만든 을수 아비의 새 집은 우리 전통문화에 남아 있는 '초분(草풀 초, 墳무덤 분)'의 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분에 대한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초분

주검을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는 빈장(殯葬)의 한 형태로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종의 풀무덤으로, 시신 또는 관을 땅 위에 올려 놓은 뒤 짚이나 풀 등으로 엮은 이엉을 덮어 두었다가, 2~3년 후 남은 뼈를 씻어(씻골) 땅에 묻는 무덤을 말한다. 상주가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에 갑자기 상을 당하거나 죽은 즉시 묻는 게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민간신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졌다. 문헌자료에도 전염병으로 죽거나 객지에서 죽었을 경우, 집안이 가난해서 장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어려서 죽었을 경우 등에 한해 초분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위생법의 제정과 화장의 장려 및 초빈(草殯)의 금지로 점차 사라졌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서남해안 지역 일부 섬에서 초분이 계속 만들어졌다.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사고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느새 굿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갑수와 각시 무당이 아무도 모르게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야릇한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제부터 두 사람을 쭉 지켜보았던 저승사자와 여러 귀신들을 빼고는요.

(나) 지난밤 저승사자는 귀신들과 마을에 나왔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갑수가 각시 무당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한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무당을 찾아가다니 뭔가 수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수는 각시 무당과 흉측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 "내일 동헌에 다녀와 자네를 부를 테니 우리 집으로 서둘러 와서 굿을 해 주게. 마지막에 넋 올리기를 할 때……." (중략)

저승사자는 갑수의 음모를 눈치챘지요.

(다) 드디어 넋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각시 무당이 병풍에서 갑수 아비의 넋 종이를 떼어 갑수의 머리에 씌웠어요. 지전 다발을 흔들고 춤을 추다가 넋 종이에 슬며시 갖다 댔어요. 그리고 넋 종이가 따라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지만 ㉠넋 종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1) (가)~(다)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2) 윗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갑수와 각시 무당의 음모대로 된 것이다.
② 마을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③ 귀신이 자식의 정성에 감동했다는 뜻이다.
④ 사람들로부터 효자로 인정받게 된다.
⑤ 저승사자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무덤이 들썩들썩 귀신이 곡할 노릇 (초등 3학년)

파란자전거 | 정혜원 글/ 김지민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 답안) 1) 무섭고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 2) 얼굴이 초록색이고 눈이 크며 입술이 보라색인 저승사자가 엄청 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있다. / 머리가 긴 귀신 두 명이 흰 소복을 입고 앉아 있다. / 얼굴과 몸이 모두 보라색인 도깨비가 연잎 위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다. / 머리카락이 분홍색이고 얼굴이 연두색인 귀신이 입에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거꾸로 늘어뜨리고 있다. 등 3) 저승사자, 도깨비, 외눈박이 4) 욕심 많은 사고뭉치 아들 갑수가 제삿밥을 해주지 않아서 갑수 아비 귀신이 쫄쫄 굶을 것 같다.
2쪽	1) ③ 2) 톨, 포기
3쪽	1) (예시 답안) ① 솔솔 ② 핑글핑글 ③ 쿵쾅쿵쾅 ④ 말똥말똥 ⑤ 덩실덩실 2) ① 모락모락 ② 핑그르르 ③ 겅중겅중 ④ 멀뚱멀뚱 ⑤ 덩실덩실
4쪽	1)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믿기 힘들어 하고 죽은 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한다. 2) ① 파냈던 흙을 도로 퍼 넣어 구덩이를 메움. ② 큰 돌을 찾아 바위에 부딪혀 쪼갠 다음 잔디밭에 가지런히 깔고, 작은 돌을 찾아 큰 돌 사이사이 끼워 넣음. ③ 초가지붕 만들어 얹기, 볏단과 칡덩굴로 초가지붕을 만들어 아비의 시신 위에 씌움.
5쪽	1) 갑수가 사실은 효자가 아니라 갑수 아비가 숨겨 둔 금덩이를 찾으러 돌아왔으며, 그것으로 벼슬을 얻어 백성들의 재물을 마음껏 빼앗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는 것. 2) ②
6쪽	1) 을수의 진실 : 아비의 새 집을 지어 잘 모셔두고 매일 상식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 /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을수 : 죽은 아비를 내다 버린 불효자 2) (예시 답안) 불효를 부끄러운 일로 여겼고, 마을에 불효자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7~8쪽	1) ③ 2) 을수가 아비의 시신을 내다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9쪽	1) (나) - (가) - (다) 2) ②, ⑤